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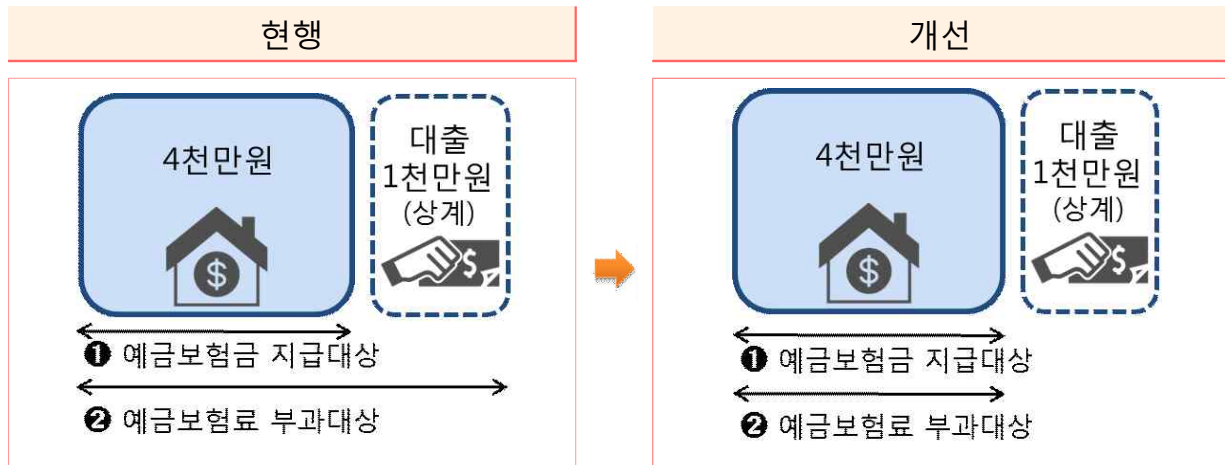
2. 주요 내용

- 이에 따라 예보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①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을 부과기준에서 제외하고, ② 보험업권 산정기준(책임준비금)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
① **(담보대출 등 부보예금에서 제외)**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하였습니다.

-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되므로,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습니다.

< 예시 : 총 5천만원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 1천만원이 있는 경우 >



② **(부과대상 산정기준 통일)**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
- 은행 등 타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이 모두 연평균잔액임을 감안하여 업권간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.

※ 다만, 금번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사항이 과거 금융회사 부실정리 투입 자금의 상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

3. 향후 일정

-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분*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

* 은행은 '20.7월말, 보험·금융투자·저축은행 업권은 '20.6월말까지 납부하는 보험료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